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7일(일) 총 3매	
담당 부서 자치경찰운영과	담당 자 • 자치협력팀장 한대규 ☎458-7291 • 담당자 황유경 ☎458-729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교통대책 추진

- 교통 혼잡, 시민불편 최소화 위해 교통관리대책 마련 -
- 주요교차로에 경찰관 집중 배치, 불법주정차 및 음주운전 단속 등 조치 -
- 이병록 위원장, 행사 종료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안전에 집중할 것 -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가 지난 5일부터 3일간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2’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는 시경찰청(청장 이영상)과 함께 국내 최대 음악축제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2022’가 열리는 송도달빛축제공원을 방문해 교통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축제 시 교통 혼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관리대책을 마련해 철저한 대응에 나섰다. △행사장 주변 참가자 집결·해산으로 인한 교통 혼잡,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행사관람객의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다.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이용 등을 사전 홍보하도록 주최 측에 협조 요청했다. 경찰은 주요교차

로에 배치해 관리하고, 특히 혼잡시간대인 메인공연 및 종료~철수 시 집중배치 했다. 기타 구간은 주최 측 요원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행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및 이동조치 하고, 유동순찰을 실시해 교통통제 및 신호기 조작근무가 필요한 곳에 교통경찰, 싸이카를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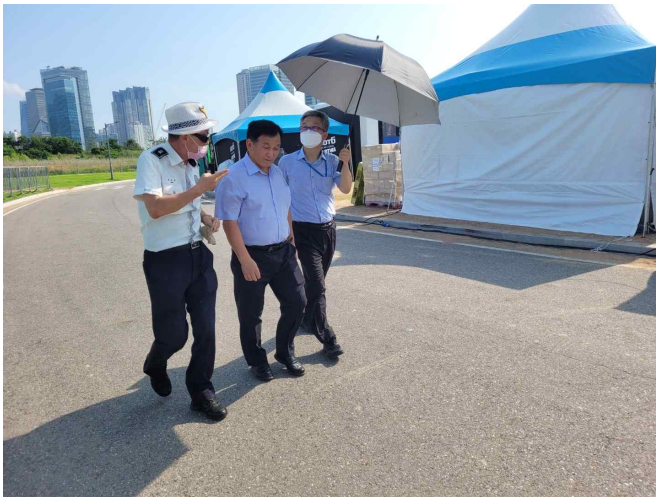
특히, 주요지점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전체 교통상황 관리 및 신호기 관리 등을 실시하고, 교통량 집중시간대인 입·퇴장 시 교통경찰을 중점 배치 했다.

이 밖에도 행사장 주변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병록 위원장은 “3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만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행사 종료 시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관람객들께서도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공연질서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지난해 5월 17일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공식 출범했다. 제1호 사업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선정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아동학대 112신고와 임시조치 건수 증가 등 성과를 냈으며, 올해는 제2호 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을 선정하고 여성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해 집중 추진하고 있다.

<붙임> 관련사진



이병록 위원장이 ‘인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해
교통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